

한곳에 집결한 소상공인 “혁신과 단결로 생존사수”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5일까지 소상공인주간 지정
개인·단체 3개분야 유공자 포상
기능경진대회·우수제품 판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소상공인 대회가 열렸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맞춤형 복 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비엔테일러샵 박정열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미용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기술 개발 및 제품 수출 지원 등에 기여한 대한미용사회 최영희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했다. 또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를 소상공인주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대회, 기능경진대회, 플리마켓 위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이날 대회장을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들이 소상공인의 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로서 자긍심을 가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규환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 장관. /김승호 기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는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삼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 방송, 우수제품 판매·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운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유공자 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 등 총 3개 부분에서 총 147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기에는 훈장수훈 2명과 함께 산업포장 2명도 포함돼 있다.

브래드밀레 박상규 대표는 22년간 제과기술 발전에 힘을 쓰며 제과기능장 취득,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등 제과제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자동차클러버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은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 제조사를 육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밀알플라워 유현미 대표, 스킨블루 권혁환 대표, 문방사우 권희택 대표, 나드리 김정애 대표, 공산건설 비 김경식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우수지원단체 부분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창업 교육·컨설팅, 시설개선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미용인들이 기술을 뽐내고 있다.

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한가운데에 올해부터 중기부가 운영하는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가 자리해 크리에이터 ‘강과장’과 ‘LeMi’, 개그맨 이동엽씨가 소상공인 우수제품 소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했다.

체험관에는 인절미 메치기, 카페공방 체험, 인생사진 촬영, 할로윈 분장 등 업종별 특색을 살린 체험거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30여개의 판매관을 설치해 소공인 제품과 백년가게 음식 등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온라인 시장 진출, 족부스캐너·스마트오더·스마트머리 등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아시아외식연합회·조리기능장협회 기능경진대회도 열려 조리경연, 베이커리경연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총 1500여명이 경연을 벌였다.

맞춤양복, 플로리스트, 선물포장, 피부미용, 이용사, 메이크업 경진대회에도 총 1600여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소상공인의 우수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원동력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상등이 켜진 것도 사실이고, 내수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곤경에 처하다 못해 생존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의 혁신과 단결을 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우리 경제 정책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소상공인의 계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왔던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재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왼쪽 네번째부터)정진우 중진공 이사, 백경호 기보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OU

기업 재기, 컨설팅·자금지원 한번에

기보 지원대상 추천, 중진공 방안 제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중진공과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재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보가 재기지원기업을 컨설팅 우선지

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중진공이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기 지원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컨설팅 대상 기업 선별 추천 ▲진로제시 컨설팅 등 각종 사업 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지원 등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웅진 정수기·공기청정기 관리, 국내 최고인증

웅진코웨이

A/S분야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웅진코웨이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A/S부문 1위에 오르며 2관왕을 달성했다

고 31일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서비스 점검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위생 케어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A/S부문에서 각각 1위에 뽑혔다. /김승호 기자

“중소상공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정책토론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 주장
제도마련 등 접근방식 두고 시각차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O2O 등 온라인플랫폼들을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들이 타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기업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종류	사업자명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 쇼핑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	쿠팡, 티몬, 위메프 등
O2O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세탁앱, 부동산중개업 등
종합쇼핑몰 사업자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포털사이트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등
TV홈쇼핑 계열 사업자	GS샵, CJ물, 롯데홈쇼핑, H물, 홈앤쇼핑, NS물 등

/자료=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

김윤정 실장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일 경우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1호의 가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오픈마켓이나 O2O 사업자와 같이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입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하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가운데 지난해 10월 16일 신설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규정을 확대 개정해 이들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법 테두리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이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서 다소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문상일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지만 규제방식에 있어서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